

지난해 여수 찾은 관광객 872만명... 1년새 40% 급감

여수시 2015년 이후 관광객 첫 감소
주요 축제·행사 취소 등 영향
비대면 관광지는 방문객 증가

여수시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난해 여수시 주요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87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박람회 개최 이전 600~700만 명이던 관광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1300~1500만 명을 유지한 이래 최초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1354만명에 비해 40%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오동도, 엑스포해양공원,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인기관광지 방문객 수도 30~40%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북선축제, 여수불꽃축제 등 주요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고, 관광시설의 잦은 휴관과 입장객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관광지의 방문객수가



여수시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난해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87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가사리 생태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캠핑장 등 비대면 관광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방문객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철도역, 여객선터미널 등 공무원 24시간 발열 근무, 관광시설 직원 전담제 운영 등 시의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5월 황금연휴와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타 도시보다 여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국내여행 희망 방문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 기초지자체 중에서 여수가 1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조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여수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비대면 여행트렌드 속에서 탁 트인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이 가득한 여수가 올해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변화하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에 대비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각자 고통을 감내하며 청정 여수 만들기에 동참해 주셔서 관광분야의 타격이 타 지역보다는 다소 적었다"면서 "여수가 세계 속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확충함은 물론, 공영 주차장 확충과 정지와 친절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관광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metroseoul.co.kr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후원자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전달한 성금 200만원

신안군 익명의 천사 200만원 기탁

신안군은 지난 12일 무한의 다리에서 왔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후원자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따뜻하게 사용해 달라면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자는 신문으로 품종 싸맨 200만원을 건네며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이웃돕기 담당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겨울 한파속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따뜻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만 남긴 채 묵묵히 자리를 떠났다.

신안군은 익명의 기부자의 뜻을 잘 받아들여 전달받은 후원금을 신안군복지재단에 기탁해 '실 수 있는 한 평의 공간이라도 있다면'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쓸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재 전남복지재단에서 진행중인 블루SOS의 사례모금운동과 신안군 복지재단 주거지원 사업의 하나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신안군과 민간 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시는 익명의 기부 천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울진군 대계 불법어업자 특별단속

울진군은 올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계 불법어업자를 관내에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계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하여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계 포획 위반으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계를 포획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계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계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울진(경북)=김귀열 기자

영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나' 등급

경북도내 최고 등급 성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인 '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전국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총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해 지속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지난 2019년의 평가 '나' 등급에서 3단계 수직 상승한 '나' 등급을 받아 경북도내 최고 등급의 성적을 거뒀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의 '민원행정 관리기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영주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됐다.

으며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고충민원의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욱영 영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감동주는 섬김행정'이라는 시정 목표를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북)=김귀열 기자

영양군 밤하늘공원,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자연환경·생태적 보전가치 뛰어나

영양군은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생태관광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운영평가를 거쳐 재지정하고 있다.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의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



밤하늘보호공원구조물 사진

역, 반딧불이특구,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나, 2018년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운영 평가 결과 재지정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도는 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39세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경북도, 비대면 산업 채용지원

도내 17개 시군 199명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경상북도는 올 한해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비대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청년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산업분야는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며 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백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해준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하며 도내 17개 시군 총 199명을 지원한다.

이번 비대면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문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고, 3월중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문경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10km 방역대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경상북도는 문경시 농암면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농장에 사육중인 산란계 3만 8000수와 반경 500m 이내 1만 수를 포함하여 전체 4개 농장 22만 8000수를 살처분 조치하고 10km 방역대내 농장

6호, 역학관련 농장 7호 및 사료공장 1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예찰·검사를 실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문경시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에 대해서는 7일간,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문경(경북)=김홍기 기자 gi2136@